

잡아함 121. 사멸경

날짜: 11월 11th, 2024

출처: <http://www.dhamma.kr/wp/?p=17750>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마구라산에 계시었다. 때에 라다라는 시자 비구가 있었다. 그 때에 세존께서는 라다 비구에게 말씀하시었다.

“모든 물질로써, 과거거나 미래거나 현재거나 안이거나 밖이거나 굵거나 가늘거나 좋거나 더럽거나 멀거나 가깝거나 그 일체는 다 죽는 법이며 느 낌·생각·지어감·의식도 또한 그와 같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라다에게 말씀하시었다.

“물질은 항상된 것인가. 항상되지 않은 것인가.”

“항상되지 않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항상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괴로운 것인가.”

“그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느낌·생각·지어감·의식은 항상된 것인가. 항상되지 않은 것인가.”

“항상되지 않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항상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괴로운 것인가.”

“그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덧없고 괴로운 것이라면 그것은 변하고 바뀌는 법이니라. 그런데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로서 과연 거기서 ‘이것은 <나>다. 나와 다르다. 그 둘의 합한 것이다’라고 보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로서 이 다섯 가지 쌍임에서 ‘이것은 <나>가 아니다. <내 것>도 아니다’고 참다이 관찰하면 그는 모든 세간에서 도무지 취할 것이 없고, 취할 것이 없으므로 집착할 것이 없으며, 집착할 것이 없으므로 스스로 <열반>을 깨달을 것이다. 그래서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서고, 할 일은 이미 마쳐 다시는 후세 몸을 받지 않을 줄을 스

스로 알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라다 비구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밟들어 행하였다.

본 문서는 dhamma.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